

# 퍼플섬을 달린다...신안 자전거대회 4일 2차 라이딩

### 전국 동호인 등 300여명 참가 안좌도 비경따라 힐링 한바퀴 비경쟁 투어로 여유롭게 즐겨

자전거를 타고 국내 섬 관광지를 대표하는 신안 '퍼플(Purple·보라색) 섬'을 둘러보는 행사가 열린다.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Happy Riding) 2차 라이딩이 4일 신안군 안좌면(안좌도) 일대에서 열린다.

1004스포츠클럽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안군, (사)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 등 300여명이 참가한다.

행사는 신안의 비경을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알리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은 자치단체 2곳 가운데 한 곳에 포함될 정도로 청정한 섬이다. 행사 장소인 안좌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올 현재 40만명이 퍼플섬을 찾았다. 신안군이 보라색을 활용한 '색채 마케팅'으로 '반

월·박지도'를 여행명소로 탈바꿈시킨 덕분이다. 일명 '퍼플 섬'이다. 섬으로 들어가는 목교가 보라색으로 칠해져있고, 계절마다 보라빛 꽃망울을 터운다. 지난해 12월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신안군 안좌도 남단 두리선착장에서 박지도까지는 보라색으로 온통 칠해진 547m 길이의 보행교로 연결된다.

대회 코스는 안좌도의 비경을 포함하고 있다. 안좌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해 마진리~서서리~방월~자라대교~신안군자라도 출장소 등 39km 코스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동호인 등이 즐기는 '열린 대회'로 치러진다.

14세 이상 남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용 자전거 종류도 제한도 없다.

비경쟁 자전거 투어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퍼플섬을 즐길 수 있다.

대회 참가 기념품 비롯해 경품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자전거 용품 등을 제공한다.

한편,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1차 행사는 증도에서 열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달 28일 증도 일원에서 열린 신안 2022 자전거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신안=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KIA 임석진 "서울고 3인방 내년엔 일내자"

### 지난 5월 SSG서 이적 '우타거포' 주효상·최원준과 서울고 주축 마무리 캠프서 수비 집중 훈련 '나만 잘하면 함께 될 수 있을 것'

"나만 잘하면 된다"며 KIA 타이거즈 임석진(사진)이 '서울고 3인방'의 재회를 그렸다.

임석진은 지난 5월 트레이드를 통해 SSG에서 KIA로 이적한 내야수다. '우타거포' 기대주로 영입한 그는 지난 제주도 캠프에서는 포수 신범수와 함께 '최고참'이자 '부주장'으로 역할을 했다.

2022년은 임석진에게 야구 전환점이 됐다.

임석진은 "자다가 트레이드 소식을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어렸을 때 KIA 야구 보러 많이 갔다. 그때는 KIA가 군산으로 와서 시합도 해서 보러 간 기억이 있다. 원래 좋아했던 팀이고, 1군도 많이 불러주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다. 올 시즌 그냥 흘러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항상 열심히 해야 하지만 더 뜨겁게 했다. 더 열심히 했다"고 2022년을 돌아봤다.

트레이드 이후 임석진은 1군에서 10경기를 소화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17타석에 들어서 하나의 안타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일한 안타가 잠실 야구장 외야 상단을 때린 비거리 135m의 대형 홈런이었다. 임석진의 프로 데뷔 홈런이기도 했다.

KIA가 기대한 힘을 보여준 임석진은 지난 마무리 캠프에서는 수비에 공을 들였다.

임석진은 "방망이는 잘 맞는 날이 있고 못 맞는 날도 있다. 수비를 생각하면서 마무리캠프 참가했다. 방망이는 겨울에 쳐도 되니까 수비 따듯할 때 하고 싶어서 수비를 많이 했다. 송구에 집중했다"며 "캠프가 많이 힘들었지만 얻은 것도 많이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올라왔다. 이걸 이어서 비시즌에도 계속 체력 운동 많이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제주도 캠프를 치르는 동안 임석진의 모교인 '서울고'가 주목받았다.

포수 주효상이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에서 이적



하면서 상무에서 복무 중인 외야수 최원준까지 서울고에서 활약했던 '3인방'이 KIA에서 재결합하게 된 것이다.

박동원이 FA 계약을 통해 LG로 이적하면서 주효상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내년 6월이면 최원준도 군복무를 마치고 팀으로 돌아온다. 내야에서 임석진까지 파워를 보여준다면 '서울고 3인방'은 KIA 전력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임석진은 "효상은 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했던 선수라서 따로 이야기해 줄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같이 야구 잘하면 좋겠다. 나도 성실한 선수였다. 효상이 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웃음)"며 "나만 잘하면 라인업에 세 명이 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캠프에서 더 열심히 했다. 코치님들도 자극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겨울 목표 첫 번째가 다이어트다. 두 번째는 타격 연습 확실히 해서 내 것 만드는 것이다. 장점을 살리는 것으로 가할 것 같다. 준비 잘 해서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고흥의 아들' 신록 세계역도선수권 출격

### 박혜정·손영희 등 메달 기대

한국 역대 대표팀이 2022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자 1일 콜롬비아 보고타로 떠났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는 5일에 개막해 18일까지 열린다.

전용성 총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선수 18명(남자 10명·여자 8명)을 내보낸다. 남자 61kg급에 출전한 고흥 출신 신록(20·고양 시청·사진)이 따낼 메달 갯수가 관심이다.

신록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인상 132kg, 용상 156kg, 합계 288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에 올랐다.

단일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 3개를 획득한 건 신록이 처음이다.

여자 최중량급(87kg 이상)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라이징 스타' 박혜정(19·안산공고)과 2021년 세계선수권 합계 1위 손영희(29·부산체육회)가 출전한다.



박혜정은 올해 5월 그리스 헤라클리온에서 열린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인상 120kg, 용상 161kg, 합계 281kg)와 7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치른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인상 115kg, 용상 155kg, 합계 270kg)에서 모두 우승했다. /연합뉴스

## '62 홈런' 저지, 타자 최고 연봉 495억도 거절

### 타구단 구애로 몸값 올라갈 듯

미국프로야구에서 아메리칸리그 최다 홈런 기록을 수립한 에런 저지(30)가 역대 야수 최고액 연봉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한 저지는 원소속팀 뉴욕 양키스로부터 8년간 3억달러(약 3957억원)를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ESPN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양키스가 제시한 연평균 3750만달러(약 495억원)는 메이저리그 타자 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현재 타자 최고액은 2019년 3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12년간 4억2650만달러에 계약한 마이크 트라웃(31)이 받는 연평균 3554만달러다.

투수 중에서는 지난겨울 뉴욕 메츠와 3년간 1억3000만달러에 계약한 맥스 셔저(38)가 받는 연평균 4333만달러가 최고액이다.

저지는 시즌 초인 지난 4월 양키스로부터 2억3050달러에 8년 연장계약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

했다. 그리고는 올 시즌 62홈런을 쏘아 올려 1961년 팀 선배인 로저 매리스가 수립한 아메리칸리그 최다홈런 기록인 61홈런을 61년만에 경신하고 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배리 본즈(73개)와 마크 맥과이어(70개), 세미 소사(66개)가 저지보다 많은 홈런을 날렸으나 이들은 모두 금지약물 의혹을 받은 타자들이다.

저지는 시즌 뒤 양키스의 웨일파임 오퍼(QO)인 1년간 1950만달러도 거절하고 FA 시장에 나섰다.

반드시 저지를 붙잡겠다는 양키스는 다시 제안한 역대 야수 최고액마저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지는 고향 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과도 접촉 중이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빅마켓 구단들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는 저지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올빼미, 압꾸정
- 2관 데시벨
- 3관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 4관 압꾸정
- 5관 올빼미, 동감
- 6관 올빼미, 데시벨
- 9관 압꾸정, 탄생
- 7관 씨네커플 압꾸정,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동감, 헤이지니&럭키강이 비밀의 문
- 8관 씨네커플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동감, 본즈 앤 윌, 스트레인지 월드

광주시립오페라단 2022 송년음악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II>  
일시 : 2022. 12. 3.(토) 17:00  
2022. 12. 4.(일) 17:0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 062-412-2507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1  
피노키오  
일시 :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6